감성과학, Vol.17, No.2, pp.123-134, June 2014
http://dx.doi.org/10.14695/KJSOS.2014.17.2.123

블라우스 종류에 따른 감성 및 최적 색채 톤

Sensibility According to Blouse Type and Their Best-fit Color Tone

박기주 · 나영주†
Kiju Park · Youngjoo Na†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uman Ecology, Inha University

Abstract

Sensibilities to the clothing components such as style and color tone of fashion product are considered important to the consumers in fashion industry today. So the combinational study of clothing sensibility and proper end-use style are needed to improve the product refinements in developing process through scientific research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ensibilities of the blouse type as a clothing component for it is a representative garment of women and to look for the best matching color tone according to blouse type. We surveyed the questionnaire to two hundred college students and foun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relational consistency between blouse type and color tone. Blouses have been told the best if they are of Bright color tone. They preferred Shirt blouse type and Bright color tone best of all. They are fond of Vivid color tone but they think Vivid tone is not so proper to the blouses. Each blouse has 1~2 best-fit color tones, and color sensibility affect the harmony of blouse style and color tone. The sensibilities of blouse type and color tone are deeply correlated each other regardless of subject's major or gender except a few cases.

Key words: Blouse, Color Tone, Sensibility, Best matching, Clothing component

요 약

스타일이나 색채 톤과 같은 의복 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감성은 섬유패션산업에서 소비자와 시장에 대하여 제품의 호소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호소력 높은 섬유패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복의 감성과 적절한 용도의 관련성과 같은 상호관련 또는 복합적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색채 톤과 여성의 대표적인 의복 블라우스의 감성을 측정하고 블라우스 종류에 따른 최적의 색채 톤을 발견하는 것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블라우스 종류와 색채 톤 사이에 의미있는 연관성을 발견하였다.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류는 셔츠 블라우스와 브라이트 톤이었다. 비비드 톤도 선호하였지만 블라우스로는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블라우스에는 색채톤 중에서 브라이트 톤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답하였으며 각 블라우스 종류마다 1-2가지 최적 색채 톤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블라우스의 감성과 색채 톤의 감성 간에 깊은 상관이 있었으며 블라우스의 감성에 따라서 최적 색채 톤이 결정되었다. 이는 성별, 전공유무와 상관이 없이 거의 동일하였다.

주제어: 블라우스, 색채 톤, 감성, 최적의 조합, 의복 구성요소

† 교신저자 : 나영주 (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E-mail: youngjoo@inha.ac.kr
TEL : 032-860-8136
FAX : 032-865-8130

1. 서론

최근 의류산업에서 유통 부문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객과의 접점 장소로서 매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디스플레이 또는 의복의 색채 계획, 색채 감성마케팅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복의 형태나 스타일, 실루엣, 재질, 무늬 등을 감성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주 결정 요소로 다루어 각기 연구해 왔으나 스타일과 색채의 감성을 연결시켜 비교 연구한 경우는 없었다.

의복 구성요소인 형태, 질감, 문양, 소재, 색채 중에서 색채는 가장 먼저 시각을 자극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요소이다 (Je & Lee, 2011). 의복 색은 착용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조화를 이끌어 내는 요소로 활용이 용이하고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첫 단계에서 구매자의 흥미를 쉽게 유도하므로 상품 구매 과정에서 중요시 되어 왔다. 가시적인 색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최초 감성이 자극되고 그 자극이 상품에 대한 흥미로 연결되며 결국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의복상품 구매 후에도 색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의복의 교환 경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Eckman & Kaldolph, 1990).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 내부에서 촉발되는 고차원의 복합적인 느낌인 감성은, 주로 시각 자극으로 입력되므로 대상의 외적인 상태, 즉 색채나 형태 등에 의해서 자극되며 이는 정보, 기억, 경험 등과 혼합 작용하여 감정발현 중추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색채는 상품의 평가와 매력도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때 색이나 형태는 자극으로서 각기 작용한다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감성을 형성하게 된다 (Kwan et al., 2000; Joo, 2007). 지금까지 색에 대한 다양한 연상에 관하여 규칙성있게 분석, 정리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서 더 진행하여 색과 의복형태의 감성을 연결시켜 고찰함으로써 복잡한 소비자의 감성과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소비자들의 감성을 1차원적으로 단순히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류 상품과 연계시켜 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Oh & Lee, 2002).

그러나 현재까지는 의복의 재질 (Oh & Lee, 2002), 색채 (Je & Lee, 2011; Yoon & Kim, 2008), 의복 섬유 및 조직 (Kwan et al., 2000), 텍스타일디자인 (Na & Han, 2002) 등 감성 자극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들에 대한 인상형성, 시각적인 평가, 특성, 선호도 등 일차원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의류상품과 연계시킨 복합적인 연구는 색상 톤과 의복스타일의 감성 (Choi & Ryoo, 2010), 패션소재의 색채 이미지와 질감 (Choo & Kim, 2002), 양모의 태와 최적 재킷 스타일 (Jung & Na, 2003) 등 소수만이 수행되어 왔을 뿐이다.

색은 배색, 명도, 조합, 톤 등 다양한 색채 구성 요소들이 있으며 이 중 배색, 명도, 조합 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반면에 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또 색은 제품의 형태와 소재, 소비자의 감성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상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의복 요소 및 감성과 함께 그 적합성,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의류제품에 있어서 색과 스타일에 대한 종합적 감성의 연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블라우스의 종류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색채 톤의 감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의복감성과 색채 톤 감성의 상호작용을 밝혀보고자 한다. 즉 색채 톤 및 블라우스 종류에 대한 감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감성 평가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스타일 감성과 색채 톤 감성 간의 상관성이 최적 조합 인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복과 색채

사람들은 보기에 아름다운 의복,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 착용감이 좋고 편안한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며 최종적으로 쾌감(pleasant), 나아가 의복에서 정신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외모 및 의복 단서를 이용하여 착용자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데 이에는 나이, 사회적 지위, 인성, 직업, 성별, 가치관 등이 있다 (Jung & Kang, 2006). 이때 의복에서 받는 인상이나 감정은 여러 요인이 종합된 것이며 실루엣이

나 스타일, 패턴, 색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복의 형태요인에는 실루엣, 원피스 또는 스커트나 바지 등과 같은 의복종류, 칼라, 소매, 옷길이, 절개선 등이 있다 (Kim & Lee, 2000). 실루엣과 감성과의 관계 연구에 의하면 기능성이 높은 실루엣은 스포츠룩, 블루종 라인이고 이는 '활동적, 스포티'의 감성을 갖는다. 주목성이 높은 실루엣은 버블 라인이고 이는 '개성적인, 기발한' 등의 감성을 갖는다. 또 평가성은 아워글라스 라인이 높게 나타났고 '세련된, 좋은' 등의 감성을 갖는데, 이 평가성은 시간성 및 유행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Kwan et al., 2000).

실제로 의복에서는 같은 실루엣이라도 의복의 색이나 무늬, 재질감, 착용자의 체형 등에 따라 감정효과가 다르다. 또 외투나 시각적으로 큰 면적을 차지하는 의복에서는 색채가 이미지, 감성의 지각에서 중요시되며, 색채의 배색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Cho & Kim, 2006). 또 패션과 소비 감성의 관련성 연구에 의하면 '보기 좋고 우아한' 감성이 쾌감과 고급감과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선호도 증가 및 구매욕구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매력있는, 사고 싶은, 좋아하는' 등의 감성과 선호도가 상관이 깊었다 (Lee & Lee, 2008).

2.2 색채의 감성

색은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눈을 통해 감지되는 것으로서 주변 환경과 경험에 따라, 또는 대상 물체의 형태나 스타일에 따라서 색의 상징성, 의미나 감성이 다르게 형성할 수 있다. 흰색은 팽창되어 보이는 성질을 가졌으며 경쾌, 청결, 진실, 적극적인 감성을 나타낸다. 또 검정색은 무거워 보이며 수축되어 보이는 성질을 가졌으며 우울, 정지, 비애 등의 감성을 나타내고, 빨강색은 큰 매력의 힘이 있는 색으로 공격적이며 적극적이고 흥분적인 성질을 가졌으며 잔인, 분노, 정열 등의 감성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명랑하고 즐겁고 활발하며 따스한 감성을 나타내고, 파랑색은 차고 청명하며 냉정, 평온함 등의 감성을 나타내며, 초록색은 풍요로움, 평화, 차분함 등의 감성을 나타낸다 (Na & Han, 1987). 비비드 톤은 순색에 해당되는 색 군으로 강하고 한여름을 연상케 하고, 라이트 톤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 군으로 봄을 달콤함을 연상케 한다. 딥 톤은 명도가 낮은 색 군으로 진하고 깊은 느낌을 주나 상쾌하지 못한 느낌을 주며, 페일 톤은 명도가 다소 높고 중간영역의 채도를 가진 색 군으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다크 톤은 명도는 낮고 중간영역의 채도를 가진 색 군으로 심리적으로 탁한 느낌과 음울한 느낌을 주고 그레이쉬 톤은 중명도·중채도 영역의 색 군으로 온화하고 고상한 느낌을 준다 (Joo, 2007).

색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제품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중시하는 구매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감성화 및 개성화되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은 일상 제품에서의 다양한 색의 선택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색은 상품을 기능적으로 차별화시키지는 않지만 다른 제품과 구별하게 해주며 상품의 미적 완성도를 표현하고 상품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Yoon & Kim, 2008).

색채의 감성은 명도, 채도, 배색 등에 따라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매우 심도있게 연구되어 왔으나 의복 스타일과 상관되어 연구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특히 패션에서는 각각의 디자인 요소가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의 통합에 의해서 완전한 디자인이 성립된다. 패션을 완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써 색채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물체의 색과 형태와 재료의 특성을 함께 지니는데 (Cho & Kim, 2006), 색채가 불러 일으키는 느낌은 이미지로 전달된다.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최종 제품의 감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감성을 표현하도록 돕는 감성과학을 활용하여 색채의 감성과 의복 감성의 상호관련성을 밝혀야 한다.

2.3 색채와 형태간의 상호관계

색채와 형태의 상호관계를 살펴본 연구(Kim, 2006)에 의하면, 회화나 작품에서는 각 조형요소간의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각 조형요소들의 무게가 동등하게 될 경우엔 시각적 혼란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색채의 활성화가 주제라면 형태는 적절히 조절하여 작품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즉 색채가 강렬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형태는 단순화 되어야 한다. 작품을 제작할 때 색채를 표면에 덧붙이는 부가적인 의미

로 사용할 때와 색채 자체의 표현성을 활성화시켜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는 차이가 있다. 색채를 사물에서 떼어낸다는 것은 색채의 물리적 성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징적인 의미를 강화시키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이는 사물의 형태는 단순화 될 것이다. 색채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색채, 형태 이외의 조형요소로서 한국화의 화면에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선', '명암' 위주의 작품, 또는 '재질' 중심의 작품 등에서는 약화되므로 작품에서는 중요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선택이 필요하다. 즉 색채는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색채에 가해지는 가변적인 힘, 즉 복잡성을 띤 조형요소들의 힘을 약화시켜야 하며, 형태를 단순화시키면 색채의 특성을 활성화시키기 쉽다.

의복에서 그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Lee & Kahng, 1005), 드레스 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스커트 길이였으나 팬츠일때는 팬츠의 색채가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 또 의복색채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의복유형과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하나의 피지각체의 형태와 색채는 서로 독립된 정보로서 처리된 후 지각의 중간단계에서 상호작용하여 통합되는데, 이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같은 색채라도 형태에 따라 다른 정보값을 갖게 되므로, 같은 색채의 피지각체라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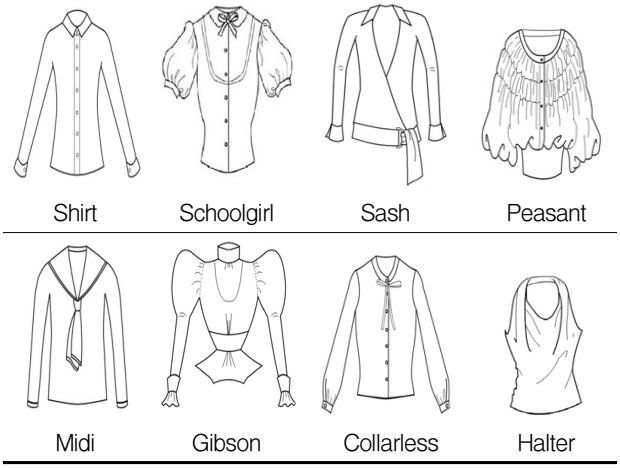
여성의 대표적인 상의인 블라우스의 종류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 및 색채 톤의 감성을 측정하여 이의 상호작용을 밝혀보고자 하였으며, 블라우스 스타일에 대한 감성과 색채 톤에 대한 감성 간의 상관성이 최적 조합의 인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극물을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1 자극물 선정 및 설문지 작성

색채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의복 종류이며 여성의 기본 의복인 블라우스를 자극물 의복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일상복에서부터 회사 유니폼에서 학생 교복까지, 또는 정장에서 캐주얼까지 다양하게 착용되고 있으며 여성에게 있어서 사계절 내내 빈번하게 착용,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 블라우스는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에게 채택되는 범용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블라우스 자극물의 선택은 문헌자료 (Park et al., 2006; Shin et al., 2000; Rasara, 1991)의 블라우스 의복종류에 관한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였으며 또 전문가 4인의 의견에 따라 유사한 특색과 감성이 나타나는 종류를 배제하고 가능한 많이 수집한 뒤에 이를 유목화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최종 8종류가 선정되었다. Table 1와 같이 블라우스 종류는 셔츠 블라우스, 스쿨걸 블라우스, 새쉬 블라우스, 페전트 블라우스, 미디 블라우스, 깁슨 블라우스, 칼라리스 블라우스, 홀터 블라우스 등이었다. 각 자극물을 5×7cm 크기 이미지로 제작하고 바로 우측에 감성측정용 척도를 배치하여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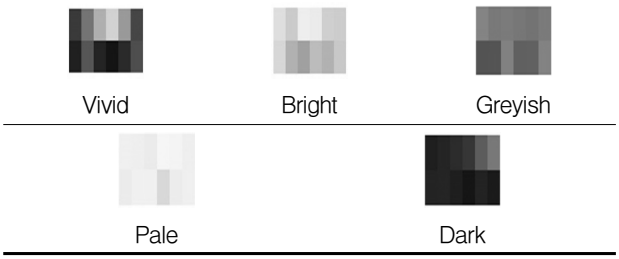
Table 1. Blouse types used in the subjective sensorial test



색채 톤에 따른 감성을 파악하고자 색채 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미국 ISCC-NBS의 11종류 톤, 일본 PCCS의 12종류 톤 (Kim, et al,. 2014) 중에서 시각적으로 그 차이가 뚜렷하고 느낌 차이도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톤들을 선정하였다. 설문문항이 너무 많으면 응답자가 성실하게 답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색채 톤을 5가지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서 확실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톤을 선택하였는데, 비비드, 브라이트, 그레이쉬, 페일, 다크 등 총 5

가지 톤을 선택하였다 (Table 2). 이는 색채 톤이 잘 나타나는 고급 컬러 인쇄용지에 따로 프린트를 하여 컬러칩을 설문지와 별도로 제작하였다. 각 색채 톤 자극물은 6×4cm의 크기로 제작하고 바로 우측에 감성측정용 척도를 배치하여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Table 2. Five Color tones as the stimulus of sensorial test



2.2 감성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블라우스에 대한 감성 평가의 형용사 어휘로는 선행연구 (Jung & Na, 2003)와 감성 8축으로서 널리 알려진 형용사들을 참고하여 '우아하다', '도회적이다', '남성적이다', '내추럴하다', '클래식이다', '캐주얼하다', '동시대적이다', '로맨틱하다' 등 총 8가지의 감성 어휘를 사용하여 5점척도로 구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선호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색채톤의 감성 평가의 형용사 어휘로는 색채 톤의 감성 관련 선행 연구 (Choi & Ryoo, 2010; Oh & Lee, 2002)을 참고하여 '세련된', '깔끔한', '고상한', '익숙한', '생동적인', '은은한', '고급인', '깊이 있는', '순수한', '발랄한' 등의 총 10가지 형용사 어휘를 선택하였고 마지막으로 선호도 문항을 추가하였다. 어휘선정과정에서도 수많은 어휘들 중에서 유사한 어휘를 통폐합함으로써 그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감성어휘 형용사를 10개로 축약, 선정하였다.

기타 인구통계적 문항을 포함하여 총 23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은 의류학 전공 남여대학생 각 50명, 비전공 남여대학생 각 50명으로 총 200명으로서 색채 톤과 블라우스 종류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성의 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먼저 색채 톤을 무작위 순서로 보여주어 해당 톤에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성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블라우스 도식화를 하나씩 보여주고 동일하게 감성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블라우스 종류와 색채 톤 간의 최적 조화를 알아보는 문항은 블라우스 종류를 제시한 후 동일한 색채톤 자극물을 보여주어 최적의 색채 톤으로 하나 고르도록 하였는데 설문조사는 2013년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분산분석, 사후검증, 요인분석, 카이검증 등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블라우스 종류 별 감성과 선호도

Table.3의 결과를 보면 블라우스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감성과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df = 7$, F값 > 34.7, $p<0.0001$). 가장 선호하는 블라우스는 선호도 3.19를 지니는 '셔츠' 블라우스였으며 다음으로 선호하는 블라우스는 '홀터' (2.78), '칼라리스' (2.61), '새쉬' (2.60) 블라우스였다. 가장 선호도가 낮은 블라우스는 선호도 1.82의 '깁슨' 블라우스였다. 다음으로 '페전트' (1.95), '스쿨걸' (1.98) 블라우스였다.

전체 평균을 보면 블라우스의 감성은 '우아하다 (3.10)' 감성이 제일 높았고 '남성적이다 (1.93)'라는 감성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용 상의인 블라우스를 선정함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시대적이다'라는 감성에서는 블라우스 종류간의 편차가 가장 적었는데 (표준편차= 0.42) 이는 선행연구 (Jung & Na, 2003)에서 언급하기도 하였듯이 피험자들이 '동시대적이다'라는 감성을 타 감성보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셔츠 블라우스의 경우 '클래식이다', '도시적이다', '남성적이다' 등의 감성이 높게 나타났고, 스쿨걸 블라우스, 깁슨 블라우스는 '우아하다', '로맨틱하다' 의 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페전트 블라우스는 매우 높거나 낮은 감성은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중간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홀터 블라우스와 새쉬 블라우스는 모두 '우아하다', '도시적이다' 감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홀터 블라우스는 비교적 여성적이고, 새쉬 블라우스는 비교적 남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 블라우스는 '클래식이다', '캐주얼하다' 감성이, 칼라리스 블라우스는 '클래식이다' 감성

Table 3. The averages of subjective sensibility according to blouse type

Blouse Type	Sensibility according to blouse type								
	Elegant ***	Urban ***	Mannish ***	Natural ***	Classic ***	Casual***	Contemporary ***	Romantic ***	Preference***
Shirt	2.66	3.47	2.72	3.03	3.75	2.90	3.21	2.43	3.19 A
Schoolgirl	3.73	2.36	1.13	1.72	3.02	1.89	2.19	3.56	1.98 D
Sash	3.04	3.50	2.56	2.54	2.57	2.65	2.92	2.71	2.60 B
Peasant	3.45	2.39	1.43	2.41	2.26	2.17	2.33	2.93	1.95 D
Midi	1.90	2.47	2.52	2.82	3.14	3.21	2.76	2.17	2.32 C
Gibson	3.81	2.57	1.23	1.63	2.91	1.76	2.01	3.30	1.82 D
Collarless	2.97	2.88	2.06	2.76	3.15	2.84	2.68	2.91	2.61 B
Halter	3.25	3.29	1.81	3.12	2.37	2.88	2.96	2.82	2.78 B
	3.10 ±0.62	2.87 ±0.49	1.93 ±0.63	2.50 ±0.56	2.90 ±0.49	2.54 ±0.53	2.63 ±0.42	2.85 ±0.44	2.41 ±0.47

: cell which figure is high , : cell which figure is low
***p≤0.0001, Duncan test - same letter grouping

이 높게 나타났다. Fig.1은 앞서 논의한 블라우스 종류별 감성 점수를 한눈에 파악이 용이하도록 나타낸 그래프이다. 블라우스 별 감성 중 '남성적이다', '우아하다' 감성이 블라우스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동시대적이다', '로맨틱하다' 감성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깁슨 블라우스와 홀터 블라우스에서는 비교적 복합적인 감성이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블라우스는 약 3 종류 감성이 대표감성으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깁슨 블라우스는 '내추럴하다(1.63)와 캐주얼하다(1.76)'의 감성이 추가적으로 더 표출하고 있었으며, 홀터 블라우스는 '내추럴하다(3.12)' 감성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났다.

Fig. 1는 블라우스 감성이 요인분석 후 2개 요인으로 묶였기에 이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가시적으로 표시한 블라우스 종류에 따른 감성 거리 그래프이다. 홀터 블라우스는 위쪽에 위치했으며 스쿨걸 블라우스와 미디 블라우스는 아래 쪽에 위치했다. 또한 깁슨 블라우스와 스쿨걸 블라우스는 가장 왼편에 위치했으며 미디 블라우스는 가장 오른편에 위치했다. 따라서 제 1 요인은 Feminine<->Masculine의 축으로 볼 수 있었으며 제 2 요인은 Classic <-> Modern의 축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극물 8종의 블라우스는 크게 4가지 감성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깁슨, 스쿨걸 블라우스 등의 전통적이고 여성스런 블라우스군과 미디, 셔츠, 칼라리스, 새쉬 등의 비교적 남성적인 블라우스군, 여성적이면서 도시적인 홀터 블라우스, 중간적인 감성을 지녀 가운데 위치한 페전트 블라우스 등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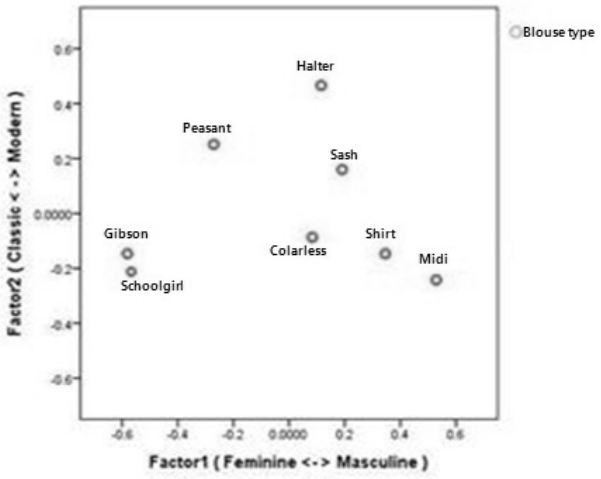


Figure 1. Similarity of blouse type according to factor score of subjective sensibility.

3.2 색채 톤 별 감성과 선호도

Table 4를 보면 색채 톤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성 및 선호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df = 4, F 값 > 20.9, p<0.0001). 가장 선호하는 색은 브라이트 톤 (3.52)이었으며 가장 선호도가 낮은 색은 다크 톤(2.67)이었다. 톤은 10가지의 감성에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비비드 톤의 경우 '생동적인', '발랄한' 감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상한', '고급인' 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

Table 4. The averages of subjective sensibility according to tone type

Tone Type	Sensibility according to color tone										
	Refined ***	Tidy ***	Noble ***	Familiar ***	Active ***	Delicate ***	High quality ***	Thoughtful ***	Pure ***	Lively ***	Preference ***
Vivid	2.74	3.15	2.33	3.40	3.89	1.74	2.35	2.61	2.72	3.79	3.23 B
Bright	2.94	3.26	2.86	3.31	2.79	3.98	3.07	2.48	3.76	3.33	3.52 A
Greyish	2.48	2.50	3.48	2.79	2.17	2.92	3.04	3.51	2.23	1.92	2.71 C
Pale	2.96	3.44	2.85	2.85	2.55	4.25	3.09	2.55	3.82	3.08	3.23 B
Dark	2.53	2.62	3.32	2.67	1.96	2.22	3.18	3.58	2.05	1.85	2.67 C
average	2.73±0.22	2.99±0.41	2.97±0.45	3.00±0.33	2.67±0.75	3.02±1.09	2.95±0.34	2.95±0.55	2.92±0.83	2.79±0.87	3.07±0.37

: cell which is high, : cell which is low
***p≤0.0001, Duncan test - same letter grouping

났는데 이는 가장 선명하고 현시성이 높은 색이기 때문이다 (Choi & Ryoo, 2010). 브라이트 톤과 페일 톤의 경우 '은은한', '순수한' 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레이쉬 톤과 다크 톤의 경우 '고상한', '깊이 있는' 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명도가 낮아 흐리지만 밝은 브라이트 톤과 페일 톤의 감성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어두운 느낌이 나며 색 기운이 적은 그레이쉬 톤과 다크 톤이 거의 유사한 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라이트, 페일 톤이 '여성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지며 그레이쉬, 다크 톤이 '고상하고 격조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Kwan, et al., 2000). 또 어두운 느낌이 나는 톤 계열에서 '고상하고 깊이 있다'는 감성이 느껴진다는 점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Joo, 2007). Fig.3은 앞서 논의한 색채 톤별 감성 점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색채 톤 별 감성 중 '은은한 (표준편차-1.09)' 감성이 색채 톤에 따른 차이가 크고, '세련된 (표준편차-0.22)' 감성이 차이가 적은 것을 재확인하였다.

Fig.2는 색채 톤 감성 간의 유사성을 그 거리로 표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2차평면 위에 표시한 것이다. 색의 감성은 크게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제 1 요인은 Young <-> Old 축으로, 제 2 요인은 Week <-> Strong 축으로 볼 수 있었다. 페일 톤은 가장 Week한 쪽에 위치했으며 비비드 톤은 가장 Strong한 쪽에 위치했다. 또한 다크 톤은 가장 Old한 쪽에 위치했고 비비드 톤은 가장 Young쪽에 위치했다. 여기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색채 톤의 감성은 '비비드, 그레이쉬/다크, 브라이트/페일' 등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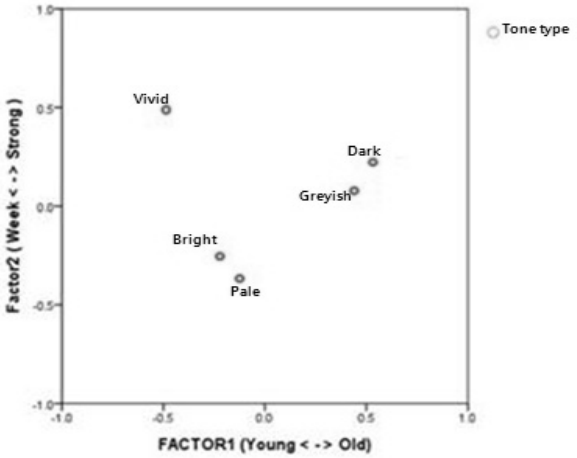


Figure 2. Similarity of tone type according to factor score of subjective sensibility

3.3 블라우스종류에 따른 최적 톤

3.3.1 전공에 따른 감성의 차이

Table.5는 의류학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 블라우스 종류 별 최적의 색채 톤 매치정도를 알아본 교차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블라우스에 적합한 색으로서 브라이트 톤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총 457명), 가장 적게 선택된 색채 톤은 다크 톤이었다 (181명). 브라이트 톤이 가장 많이 선택된 이유로는 단일 품목인 블라우스의 의복 특성상 함께 착용하는 의복과의 조화 측면에서 블라우스의 채도가 약간 높을 경우에 의복 색의 조화를 이루며 블라우스가 강조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라이트 톤은 비전공자 (251명)가 전공자 (206명)보다 약간 더 많이 선택하였는데 그레이시 톤과 페일 톤은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약

Table 5. Best-appropriate color tone type according to blouse type and major

Fashion majors/non-majors			Matching result				
			Vivid	Bright	Greyish	Pale	Dark
Majors	Blouse Type	Shirt	6	31	13	46	3
		Schoolgirl	13	47	5	34	0
		Sash	7	18	31	9	34
		Peasant	7	15	34	27	16
		Midi	41	22	11	21	4
		Gibson	22	29	14	28	6
		Collarless	8	36	14	32	9
		Halter	15	8	22	29	25
	Total		119	206	144	226	97
Non-majors	Blouse Type	Shirt	10	54	8	28	1
		Schoolgirl	8	39	10	42	2
		Sash	11	15	40	12	23
		Peasant	5	21	24	30	21
		Midi	42	23	10	22	4
		Gibson	20	41	17	16	7
		Collarless	13	41	11	31	5
		Halter	20	17	14	27	21
	Total		129	251	134	208	84

: cell which is high : cell which is low

간 더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자의 경우 색의 강도와 느낌을 소량으로도 충분히 느끼기 때문에 이를 비교적 약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블라우스의 최적 색채 톤은 블라우스마다 다르게 나타나 각 돗수의 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즉 대부분의 블라우스는 최적 색채 톤이 1~2 가지 있었으며 또 최적 색채 톤으로 선택되지 못하는 색채 톤이 있었다. 즉 한 블라우스 종류에서 가장 선호되는 색채 톤은 약 50 에 가까운 돗수를 나타내는 반면 선택되지 않는 색채 톤은 0 에 가까울 정도로 확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블라우스마다 적합한 색채 톤이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블라우스 종류는 예외였다. 깁슨 블라우스와 홀터 블라우스는 돗수가 유사하므로 여러 개의 톤이 모두 적합하다는 (전공의 경우-각 돗수 22명, 29명, 28명 및 22명, 29명, 25명) 결과이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블라우스가 다양한 감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채 톤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최적 톤 선정에 있어서 전공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4종 블라우스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고, 3종 블라우스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며, 1종의 블라우스에서만 전공에 따른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디, 깁슨, 칼라리스, 홀터 블라우스의 경우는 전공과 상관없이 동일한 색채 톤을 선정하였는데, 미디 블라우스는 비비드 톤, 깁슨과 칼라리스 블라우스는 브라이트 톤, 홀터 블라우스는 페일톤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공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로는, 셔츠 블라우스에서 전공자의 경우 페일 톤을,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브라이트 톤을 선택하였으며, 스쿨걸 블라우스는 전공자의 경우 브라이트 톤을, 비전공자의 경우 페일톤을 최적 색채 톤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새쉬 블라우스는 전공자의 경우 다크 톤을, 비전공자의 경우 그레이쉬 톤을 최적 색채 톤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일 톤과 브라이트 톤은 감성에 있어서 상호 상관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다크 톤과

Table 6. Best-appropriate color tone type according to blouse type and gender

Gender			Matching result				
			Vivid	Bright	Greyish	Pale	Dark
Male	Blouse Type	Shirt	7	46	14	32	1
		Schoolgirl	13	35	13	38	1
		Sash	12	19	28	11	30
		Peasant	5	20	27	31	17
		Midi	40	21	10	25	4
		Gibson	21	41	15	21	2
		Collarless	16	43	13	24	4
		Halter	14	17	15	36	18
	Total		128	242	135	218	77
Female	Blouse Type	Shirt	9	39	7	42	3
		Schoolgirl	8	51	2	38	1
		Sash	6	14	43	10	27
		Peasant	7	16	31	26	20
		Midi	43	24	11	18	4
		Gibson	21	29	16	23	11
		Collarless	5	34	12	39	10
		Halter	21	8	21	20	28
	Total		120	215	143	216	104

: cell which is high, : cell which is low

그레이쉬 톤의 감성이 상관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없겠다.

전공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페전트 블라우스에서 전공자는 그레이쉬 톤이 최적 색채 톤이라고 답한 반면 비전공자는 페일 톤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는 페전트 블라우스의 감성은 어느 특정 감성의 두드러짐이 없이 중간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최적 색채 톤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서 중간적인 '그레이쉬 톤' 을 취하여 선택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는 전공자는 페전트 블라우스를 노동자 또는 농부가 입던 블라우스임을 알고 그레이시 톤이 적합하다고 답하였으나 비전공자는 관련 배경지식이 없으므로 단순히 표출되는 우아한 감성에 집중하여 페일 톤이 적합하다고 선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공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험자의 색을 보는 숙련도, 관심도 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 정보의 유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3.3.2 성별에 따른 감성의 차이

Table.6는 성별에 따라 블라우스 종류 별 최적의 색채 톤의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검증으로 분석한 결과이다($p<0.001$).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블라우스의 최적 색채 톤이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트 톤은 남학생 (242명) 이 여학생 (215명) 보다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크 톤은 여학생 (104명)이 남학생 (77명)보다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전공/비전공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인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색채에 더 민감하고 성격이 섬세하기 때문에 전공자와 유사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블라우스 종류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선택된 색채 톤은 약 50 에 가까운 큰 돗수를 나타내는 반면 선택받지 못한 색채 톤은 거의 돗수 0에 가까워 크게 구분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블라우스마다 최적의 색채 톤이 따로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각 블라우스마다 선호되는 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시적인, 클래식인' 감성의 셔츠 블라우스는 브라이트 톤/페일 톤이, '우아하고 로맨틱한' 스쿨걸 블라우스는 페일 톤/브라이트 톤이, '우아하고 도시적이며 남성적인' 새쉬 블라우스는 다크 톤/그레이쉬 톤이,

‘클래식인’ 칼라리스 블라우스는 브라이트 톤/페일 톤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라이트 톤과 페일 톤이, 또 그레이시 톤과 다크 톤이 색채 감성이 서로 유사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일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페전트 블라우스의 경우 남학생은 페일 톤을 가장 적합한 톤으로 답하였으나 여학생은 그레이쉬 톤으로 답하였다. 이는 전공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서 전공자와 여학생의 선택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비전공자와 남학생의 선택 결과가 일치하였다.

‘우아하고 도시적인’ 홀터 블라우스의 경우 남학생은 페일 톤을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여학생은 다크 톤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는 남학생은 이 블라우스에서 우아하고 여성적인 감성을 느끼는 반면에, 여학생은 도시적인 감성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는 색 감각에 대한 민감도와 관심도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4. 결론

의복스타일과 색채 톤의 감성 및 의복스타일별 최적 색채 톤을 조사하기 위하여 블라우스 8종과 색채 톤 5종에 대해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감성 관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블라우스에 대한 감성과 선호도는 블라우스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장 선호되는 블라우스는 셔츠 블라우스였으며 이는 ‘도시적이고 클래식이다’의 감성을 나타냈다. 스쿨걸 블라우스는 ‘우아하고 로맨틱하다’의 감성을, 새쉬 블라우스는 ‘우아하고 도시적이며 남성적인’ 감성을 나타냈다. 페전트 블라우스는 ‘우아하다’ 감성 이외에 대부분 감성은 중간적인 점수를 나타냈다. 미디 블라우스는 ‘클래식이고 캐주얼’ 감성을 나타냈고, 칼라리스 블라우스는 ‘클래식이다’의 감성을 나타냈다. 반면에 홀터 블라우스는 ‘우아하고 도시적인 여성적인’ 등 비교적 다양한 복합 감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깁슨 블라우스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감성을 나타냈다.
2. 색채 톤에 대한 감성 및 선호도는 톤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비드 톤의 경우 ‘생동적이고 발랄하다’고 답하였고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브라이트 톤의 경우 ‘은은하고 순수하다’고 답하였다. 페일 톤의 경우도 ‘은은하고 순수하다’ 고 답하였고 그레이쉬 톤과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다크 톤의 경우에는 ‘고상하고 깊이있다’ 고 답하였다.
3. 블라우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최적 색채 톤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브라이트 톤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하였다. 또 어두운 계열의 다크 톤과 그레이쉬 톤은 블라우스 색의 적합도가 낮게 나타났다. 색채 선호도가 높았던 비비드 톤은 블라우스의 색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다지 선호도가 높지 않았던 그레이쉬 톤과 다크 톤도 이와 유사하게 블라우스 색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색채 톤 자체의 선호도와 다르게 블라우스의 최적 색채 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즉 색 톤의 선호도나 적합성은 실제 의류제품 스타일과 결합되어 판단될 때 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4. 블라우스의 종류에 따라 최적 색채 톤은 뚜렷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공이나 성별에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블라우스의 감성에 따라서 최적색채 톤이 결정되었다. ‘도시적이고 클래식인’ 셔츠 블라우스와 칼라리스 블라우스의 경우 ‘은은하고 순수한’ 페일 톤과 브라이트 톤이 가장 적합한 톤으로 나타났다. ‘우아하고 로맨틱한’ 감성의 스쿨걸, 깁슨 블라우스 역시 ‘은은하고 순수한’ 페일톤과 브라이트 톤이 가장 적합하며 다크 톤이 최악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우아하지만 도시적이며 남성적인’ 감성의 새쉬 블라우스는 ‘고상하고 깊이있는’ 그레이시톤과 다크톤이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캐주얼과 클래식의’ 감성을 갖는 미디 블라우스는 비비드 톤이 최적이고, 다크 톤이 최악이라고 답하였다.
5. 최적 색채 톤이 전공 및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 경우는 페전트 블라우스와 홀터 블라우스 경우 뿐이었다. 페전트 블라우스에 대하여 전공자와 여학생은 그레이시 톤이, 비전공자와 남학생은 페일 톤이 최적 색채 톤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홀터 블라우스에 대하여 여학생은 다크 톤이, 남학생은 페일톤이 최적이라고 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전공과 성별에 따른 선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1-2종 블라우스에서만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색채 숙련도와 민감도, 관심도, 지식정보량에 따른 차이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대상을 다른 연령대로 선정의 폭을 넓히거나 다양한 자극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의복 스타일에 따른 최적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고 또 의류상품은 감성 소비재이므로 소비자의 감성이 실제 상품과 연계될 때 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색채 톤의 확대 및 타 의복 구성요소 및 다양한 의복 복종 등 실제 제품과 연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REFERENCES

Choi, J. R. & Ryoo, S. H. (2010). Image analysis of color in clothes sty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2), 266-279.

Choo, S. H. & Kim, Y. I. (2002). A study on the color and texture of fashion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6(2), 193-204.

Eckman, D. M., & Kaldolph, S. 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 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on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3-22.

Je, G. Y. & Lee, K. H. (2011). Color preference and color meaning of university students. *J. of Kor. Soc. Cloth. Ind.,*13(3), 346-352.

Joo, M. K. (2007).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color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21(2), 19-29.

Jung, S. M. & Na, Y. J. (2003). Sensibility analysis on jacket styles with the handle and sensibility of wool fabr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7(1), 67-77.

Jung, S. J & Kang, K. J. (2006).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eyeshadow color, lipstick color and lipstick tone on impression form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5), 69-78.

Cho, J. Y. & Kim, Y. I. (2006). A study of color combination based of fashion image of domestic womens's appar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4), 160-170.

Kwan, O. K., Kim, H. E. & Na, Y. J. (2000). *Fashion and Sensibility*. Seoul: Kyomunsa.

Kim, E. A., Kim, H. K., Na, Y. J., Shin, Y. S., Oh, K. W., Yim, E, H, & Jeon, Y. J. (2014). *Fashion Textiles.* Seoul: Kyomunsa.

Kim, K. H. (2006). A study on relationship of artistic element in regard to active application of color-centering on the color, contrast, shape in painting-. *Shape Media*, 9(2), 85-95.

Kim, Y. J. & Lee, K. H. (2000). A study on Sensibility of formative properties in clothing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4(7), 976-986.

Lee, E. R. & Lee, K. H. (2008). A study on consumer sensibility of adult women's town wear. *J. of Kor. Soc. Cloth. Ind.,* 10(1), 11-21.

Lee, J. H. & Kahng, H. W. (1995). The effect of elements of apparel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part I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6), 984-994.

Na, S. I. & Han, M. S. (1987). The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sociability evaluation in first impression formation. Family Culture Research, 5, 83-98.

Na, Y. J. & Han, K. M. (2002). Sensibility according to the design factors of woven textiles. *Korean Journal of Science of Emotion and Sensiblity,* 5(3) 29-34.

Oh, H. S. & Lee, K. H. (2002). A study on the visual sensibility of clothing tex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6(9/10), 1412-1423.

Park, H. W., Lee, M. S., Yeom, H. J., Choi, K. H. &

Park, S. J. (2006). *Contemporary Fashion Design*. Seoul: Komunsa.

Shin, S. O., Oh, K. H., Lee, S. H. & Na, Y. J. (2001). *Fashion and Clothing*. Seoul: Komunsa.

Rasara. (1991).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Fashion.* Seoul: Rasara Publishing Co.

Yoon, M. J. & Kim, D. Y. (2008). Disagreement of consumer's preference on color according to product proper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lor studies,* 22(1), 93-107.

원고접수: 2014.04.10
수정접수: 2014.05.14
게재확정: 2014.06.30